

역전학습을 통한 온전성 형성의 기독교교육적 가능성 탐구

金 道 一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 교수

〈요 약〉

현대사회는 피로사회이다. 많은 사람들이 무한경쟁, 과도한 성과추구로 인해 극도로 지치고 우울한 상태 속에서 살고 있다. 그들의 자아는 파편화되었고 온전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온전성을 회복하려는 시도와 논의는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 주목할 만한 교육방법은 바로 역전학습이다. 역전학습은 교실수업 전에 미리 학습주제를 살펴보고 사고하게 함으로 자기주도적인 개별학습을 하고 교실에 들어와서는 토론과 공동학습을 통하여 참여적, 책임적, 공동체적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 학습의 과정 속에서 지식 습득뿐 아니라 자기주도성 개발, 상호존중과 관계적 삶을 형성하는 참여학습 등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역전학습은 그 과정에 있어서 협동과 사랑이 중요한 심리적 토대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아들러가 제시한 개인심리학의 핵심적 명제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의 핵심은 협동과 사랑을 통한 인간의 자존감 회복이다. 이것은 학습의 과정에서도 지나치게 경쟁과 개인주의, 결과중심으로 되어 있는 오늘의 교육현장에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으며 미래지향적 가능성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제시함으로써 오늘날 피로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피로사회에서 나타난 현상과 일반 교육현장의 문제는 기독교교육현장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학교식 교육모델의 현장 속에서 교사중심, 지식중심, 성과중심, 개인중심의 교육형태가 대부분의 기독교교육의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기독교교육이 본래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인간 존엄과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라는 교육적 명제를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역전학습과 아들러의 심리학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 공동체회복을 통한 인간 삶의 온전성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 개인으로 하여금 온전한 인간성을 회복하고 사회 속에서 협동과 사랑의 경험을 통하여 성찰적이고 책임적인 사회적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전학습의 기독교교육적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적 내용이다.

핵심주제어: 온전성, 역전학습,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사랑과 협동정신, 기독교교육

I. 서론: 무한한 긍정성의 무게에 짓눌려 자기를 착취하는 현대인

기독교교육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엄한 존재라는 명제를 인식시키고 실천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것은 신학의 기본 강령이며 인간학의 기초이고 기독교교육학의 출발이다. 이러한 정신을 기반으로 기독교교육은 인간의 온전성(Integrity)을 추구한다. 그러나 인간은 창조주를 거역함으로 불안한 존재, 씬이 없는 존재, 열등감을 가진 존재, 죄성을 가진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으며, 죄로부터 해방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할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존엄한 존재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게 된다. 기독교교육은 모든 생명이 조물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상기시키고 생명의 근원과 본질을 알아 온전성을 추구하는 존재로 변화하게 하는 교육과정을 추구한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도로 파괴되고 점점 더 파편화된 자아상을 갖게 되었고 온전성을 잃어버렸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회가 병들었고 그 사회 속의 개인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속에서 야기되는 과도한 경쟁과 끝없는 성취의 추구 때문에 현대인들은 피로와 우울에 시달리게 되었고 자기 존엄과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을 상실하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한병철은 어느 시대건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질병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현대 사회를 피로사회로 규정하였다.¹⁾ 한병철에 의하면 “성과사회의 주체가 스스로를 착취하고 있으며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다. 무서운 것은 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현대인이 앓고 있는 병은 자신들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자신을 자발적으로 착취한다”는 데에 있다.²⁾ 그들은 우울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소진증후군, 공황증과 같은 신경성적 징후를 보이며 이런 것들은 동질성의 과다에 따른 과열과 내재적인 테러 즉, 신경성 폭력을 야기하는 것이다. 특히 저자는 현대인이 빠진 덫을 이질성을 이겨내기 위한 면역저항이 아닌 동질성의 과다로 인한 일종의 심리적 경색 현상으로 해석한다.³⁾ 이러한 심리적 경색의 원인을 그는 존재의 결핍이라고 하는 철학적이고 인간학적인 맥락에서 이유를 찾고 있다.

근대는 신과 피안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현실에 대한 믿음까지도 상실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인간 삶을 극단적인 허무 속에 빠뜨린다. 유사 이래 삶이 오늘날처럼 덧없었던 적은 없었다. ... 그 어디에도 지속과 불변을 약속하는 것은 없다. 이러한 존재의 결핍 앞에서 초조와 불안이 생겨난다.

1) 한병철, *Müdig Keits Gesell Schaft*, 김태환 역, 『피로사회』(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4), 6쪽.

2) 앞의 책.

3) 앞의 책, 12-22, 21쪽 참고.

... [결국] 과잉활동, 노동과 생산의 히스테리는 바로 극단적으로 허무해진 삶, 별거벗은 생명에 대한 반응이다. 오늘날 진행 중인 삶의 가속화 역시 이러한 **존재의 결핍**과 깊은 관련이 있다. 노동사회, 성과사회는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며 계속 새로운 강제를 만들어낸다.⁴⁾

피로사회의 주요한 원인이 존재의 결핍이라고 분석하는 한병철의 논의는 교육현장에서도 주요한 통찰을 갖게 한다. 즉 교육과정 속에서 학습자의 존재의 결핍, 달리 서술하여 인간존엄성의 상실과 관계성 파괴가 학습자로 하여금 우울감과 더불어 학습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학습과정에서도 피로사회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⁵⁾ 성과위주의 피로사회 속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가운데 교수자와 학습자는 자아의 온전성을 추구하는 교육의 본래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⁶⁾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던 인간(*Imago Dei*)이 피로사회 속에서 어느덧 호모 사르케로 전락해 버린 인간의 모습을 교육현장에서도 보게되는 것이다. 기독교교육학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러한 인간의 자기 착취, 가치 상실, 초조와 불안에 빠진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고 도날드 블로쉬(Donald Bloesch)가 말 한 것처럼 모든 인간은 위대한 가능성을 갖고 태어났으나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결국은 죄성으로 인하여 비참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음이 사회의 현상 속에서 드러나게 된 것이다.

본 연구는 피로사회로 명명되는 현대사회의 병적인 상황 속에서, 역전학습을 통한 온전성 형성의 기독교교육적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려는 목적을 가진 기독교교육의 시각으로 볼 때 피로사회 속에서 파편화된 자아를 회복하고 온전한 인간성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역전학습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간학문적 접근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인간의 온전성 형성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역전학습이라는 학습방법론과 아들러(Alfred Adler)의 개인심리학이론의 이론적 토대의 만남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역전학습(逆轉學習)이란 ‘거꾸로 학습’이나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 ‘역진행 학습’ 등으로 부르는 일종의 교수학습 방법론을 의미한다. 역전학습의 기원은 2004년 미국 콜로라도 주 교외에 위치한 우드랜드 파크 고등학교(Woodland Park Highschool)에서 과학을 가르치던 버그만과 샘즈(Bergman, Sams)라는 두 교사가 개발한 교수방법이다. 거리가 먼 곳에서 열리는 운동경

4) 앞의 책, 41-43쪽.

5) 앞의 책, 「우울사회」, 113-114쪽. “우울사회”는 같은 책에 나오는 글이다. “오늘의 주체는 오히려 무한한 자유의 무게에 짓눌려 소진되고 있는 것이다. 피로는 성과주체의 만성질환이다”라고 한병철의 글을 요약한 김태환의 역자후기를 참고하라. 앞의 책, 121쪽.

6) 편의상 교사를 교수자로 학생을 학습자로 부른다. 그러나 실제 교실에서 교수자는 가르치고 학습자는 배우는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은 역전학습의 개념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사실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는 학습자가 교사에게 통찰을 주는 경우가 비밀비재하기 때문이다.

기로 인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충실하게 참여할 수 없던 상황에서 그들은 학생들이 집에서 수업내용을 미리 대할 수 있도록 미디어수업자료(pre-broadcasting)를 보고 올 수 있도록 준비하였던 것이다. 집에서는 수업의 내용을 미리 흥미롭게 보고 올 수 있도록 해주고 수업시간에는 이미 아는 내용을 기초로 하여 학생들이 토론하며 서로 배울 수 있도록 시도했던 것이다. 2011년에는 클린톤데일(Clintondale) 고등학교에서 반이상의 학생들이 사회과목에서 F를 받게 되어, 교장이었던 그린(Greg Green)이 F를 받았던 학생들을 두반으로 따로 조직하여 한반은 역전학습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다른 한반은 전통적인 수업을 20주 동안 진행한 결과 역전학습을 시도했던 반의 학생들은 전원이 이전보다 괄목할만큼의 좋은 성적을 내었고 최저 점수를 맞은 학생이 C+ 였다고 한다. 이에 반해 전통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의 성적은 이전과 같았다. 물론 이와 유사한 시도가 과거에도 있었으나 인터넷의 발전과 보급, 그러다가 특히 유튜브(Youtube)와 같은 인터넷 활용이 일반화된 것이 역전학습의 발전에 한몫을 하였다.⁷⁾ 우리나라의 경우 UNIST(울산과기대)가 2009년에 도입한 "e-Education"과 KAIST(한국과학기술원)가 2012년에 도입한 "Education 3.0 프로그램"이 첫적용 사례라고 보며,⁸⁾ 공영방송국 PD인 정찬필이 버그만과 샘즈의 책을 공역함과 동시에 버그만과 샘즈의 실험을 우리나라의 공립학교에서 실험 하였고 대중화시키려고 노력하였던 바, 성공적인 결과를 보게 되었으며 이것이 2015년 이후 교사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었다.⁹⁾ 이제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역전학습이란 단순히 교육방법의 일환인 플립 학습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이 배우는 제반 과정에 대한 일종의 변혁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독교교육에서는 학습자가 디지털 학습자료로 미리 주제에 대하여 학습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역전학습의 개념이 아직 생소하며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교육현장도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학습이 가지는 협동과 상호참여의 학습방법은 지식전달 이상을 넘어서 학습자의 자아와 태도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기에 앞으로 지속적 연구와 현장과의 접목을 통해서 시도해야 하는 주요한 교육방법이라고 보는 것이다.

또한 아德勒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자아실현을 가능케 도와주는 심리학을 역전학습의 맥락에서 간학문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피로사회의 패배감, 희망의 실종을 극복하고 넘어

7) <http://www.brighthubeducation.com/education-industry/128706-origins-of-flipped-learning/> 2016. 2. 11. 접속. 물론 1990년대에도 하버드대의 마저(Eric Mazur) 교수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교수는 가르치기 보다는 코칭을 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진작시킨 시도가 있었고 수많은 교사들이 역전수업을 시도하였으나 아무래도 인터넷이 일반적으로 보급되어 거의 모든 학생과 교사가 활용하게 되는 시점인 2004년 이후를 기원이라고 본다.

8) <https://ko.wikipedia.org/> 핵심어: 역진행 수업. 2016. 2. 11. 접속.

9) “거꾸로교실의 마법”이라는 페이스북(Facebook)의 온라인 공개그룹(futureclass.net) 마당에서는 수많은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거꾸로교실의 실험 경험을 나누고 있다.

서는 주요한 이론과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기독교교육이 추구하는 것은 과거를 넘어서는 새로운 인간으로서의 가능성이다, 아德勒의 개인 심리학도 과거의 경험과 불가항력적으로 이루어진 환경의 영향력을 현재를 해석하는 도구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을 넘어서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미래에 대한 인간의 지향성과 새롭게 되고자 하는 용기, 이것을 지지하고 연대해 주는 공동체가 인간의 온전성과 새로운 미래를 형성해 갈 수 있는 주요한 동인이라고 보는 것이다. 기독교교육과정도 마찬가지이다. 학습자로 하여금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용기와 사랑의 경험이 현재의 상처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피로사회와 우울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는 것이다. 역전학습은 바로 이러한 경험과 공동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교육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II. 교육방법으로서의 역전학습과 자아의 온전성 확립에 대하여

역전학습을 설명하는 핵심용어는 자기주도성과 소통과 협력이다. 자기주도성과 소통과 협력이라는 핵심 용어는 기존의 교실에서 교수자 중심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교수방법을 뒤집어 놓는 교육방법을 가능케 한다. 역전학습은 교수자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학습자와 함께 배우고 느끼고 성장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해 주는 교수-학습과정으로서 “전달식 강의를 전체 배움 공간에서 개별 배움 공간으로 옮기고 ... 역동적이고 서로 배움이 가능한 환경으로 바꾸는 교육 실천이다.”¹⁰⁾ 역전학습을 성공으로 이끄는 요소들은 협업, 학생중심의 배움, 최적화된 교실 공간, 시도하기에 충분한 시간, 학교관리자들의 지원, 교육정보 기술지원부서의 지원, 그리고 깊이 있는 성찰이다.¹¹⁾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협업**이다. 왜냐하면 역전학습은 협업을 통하여 문제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변혁적 시도는 안에서 밖으로, 한 번에 한사람씩 전파되며, 자체 증식하고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그 변화를 다른 이들에게 퍼뜨리는 사람이 되고, 아래에서 위로 일어나는 변화다.¹²⁾

역전학습에서는 학습자가 수업시간 전에 수업 내용에 대한 공부를 미리 할 수 있도록 영상 자료나 학습 자료를 미리 전달해 준다. 그리고 학습자는 미리 공부해온 학습내용을 수업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토론하고 교수자와 함께 교과 내용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10) John Bergmann, Aaron Sams, *Flipped Learning: Gateway to Student Engagement*, 정찬필, 임성희 역, 『거꾸로 교실: 진짜 배움으로 가는 길』(서울: 에듀니티, 2015), 36쪽.

11) 앞의 책, 37-42쪽.

12) 앞의 책, 45쪽.

궁극적으로 학습자 자신 속에 감추어져 있던 재능과 깨달음을 끄집어내게 된다. 한 사람의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오랜 시간 자신의 지식과 지혜가 부족함을 깨닫고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하고 배려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 속에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들 간의 밀접한 관계 형성이 한 사람의 성장과 성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역전학습의 성패여부의 열쇠는 교사가 역전학습에 대하여 얼마나 자세하게 소개와 효과 및 결과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가에 달려 있다. 교사가 이를 통하여 변화가 일어난다는 인식과 확신을 가져야만 역전학습의 교육적 활용가능성이 극대화된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다.¹³⁾ 역전학습이 학습자의 온전한 자아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게 해 준다는 가정은 역전학습이 갖고 있는 협업 정신과 관계 형성,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어떤 주제에 대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사고하고 토론함으로써 생기는 자기 능력개발과 자신감 회복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이 투철한 학습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미리 예습을 하고 수업을 오게 되지만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수업시간에만 해당 주제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지만 역전학습이 적절히 실행되면 거의 모든 학습자들이 수업 시간 전에 집에서부터 해당 주제에 대하여 사고하게 되는 것이다.

역전학습에서 교수자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을 디자인하고 자발적인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조력자/코치이다.¹⁴⁾ 그는 수업을 기획하는 기획자로서 “최적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 평가 방안을 고안하며 수행효과를 분석, 평가하여 피드백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¹⁵⁾ 그는 또한 교수설계자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콘텐츠 개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그는 동기유발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켈러(John M. Keller)가 개발한 ARCS 모델에 의하면 교수자는 학습자의 주의집중(Attention)을 유발하는 것과 주제와 삶의 문제 가운데 관련성(Relevance)을 찾아 맺어주는 것과 학습자로 하여금 자아에 자신감(Confidence)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과 학습경험을 통해 자아 만족감(Satisfaction)을 얻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¹⁶⁾ 마지막으로 교수자는 지식 디자이너로서 학습자로 학습과정 가운데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스토리텔러(storyteller)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학습자의 연령에 맞는 적당한 스토리를 개발하고 주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달하는 이야기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역전학습의 성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¹⁷⁾

13) 박태정, 차현진, 「거꾸로 교실의 교육적 활용가능성 탐색을 위한 교사인식 조사」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제18권 제1호(한국컴퓨터교육학회, 2015), 92-94쪽.

14) 이희숙, 김창석, 「플립러닝 학습이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동계 학술발표논문지』 제19권 1호(한국컴퓨터교육학회, 2015), 146쪽.

15) 한국U러닝연합회, 『플립러닝 성공전략』 (서울: 한국U러닝연합회, 2014), 13쪽.

16) 앞의 책, 13-15쪽.

17) 앞의 책, 16쪽.

역전학습은 가르치는 수업에서 “가리키는” 수업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¹⁸⁾ 가르침 중심 주입식 교육에서 배움 중심 수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비판적 사고를 갖춘 창의적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활동이다. 배움 중심 수업은 배움의 공동체, 협동학습, 탐구학습, 프로젝트 학습, 토론학습, 체험학습, 독서논술학습, 융합수업, 문제해결학습, 창의성 계발 학습”을 포함하는 학습형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¹⁹⁾ 이 말은 지식이 우리사회에서 경쟁력으로 작용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이제는 사고하는 능력, 자기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의적 능력을 가진 건강하고 온전한 자아를 가진 이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가리킨다는 의미는 삶의 목표와 사회의 공적 역할 등을 제시해준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피로 사회 속에서 우울과 자기착취로 신음하고 갈 바를 몰라 불안해하는 현대인에게 교육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엇보다 어린 시절부터 자기 힘으로 사고하고 다른 이들과 같이 협업학습을 연습하며 상호작용과 토론을 통하여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다. 여기서 역전학습의 성패여부는 민주적인 학교기관-교수-학습의 문화이다.²⁰⁾ 역전학습의 과정 속에서 학습자들은 활발하게 팀을 세워나가는 정신(team building spirit)을 만들어 나가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수업 전에 e-learning과 적절한 동영상을 통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배움 주제에 대하여 미리 사고한 후 자신의 학습과정을 점검하고 자기 개발을 도모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역전학습은 프로젝트 중심, 문제 중심 학습을 장려함으로써 협력적 학습과 암기가 아닌 비판적 숙고와 토론을 장려하게 된다는 점에서 건강한 온전성 형성에 매우 유익하다고 하겠다.²¹⁾ 버그만과 샘즈는 역전학습 실행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실제로 내적 성장을 경험하였다는 것과 교실 안에서 “관계의 가치”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²²⁾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역전학습은 학습자의 자기 재능발견을 도와주고, 잠자는 교실을 깨울 수 있는 수업형태이며, 종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는 교육 형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학교폭력예방과 인성교육을 수행하는 데에도 일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³⁾ 또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즐거움 배움의 경험을 가져다 줄 수 있다.²⁴⁾ 역전학습은 매우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으로 혁신적인 교육을 이루는 것에 매우 유익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습자의 자발적인 경험, 참여, 자기능력발견, 협업과

18) 정기목, 「역전학습을 응용한 토론식 협력학습」 『보편적 수업의 설계 및 실행』(서울: 장신교수학습개발원, 2015), 72쪽.

19) 류승오, 김은하, 「수업혁신을 위한 배움 중심의 거꾸로 수업 개념 논의」 『교육문제연구』 제20권 1호 (전북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4), 69쪽.

20) 앞의 글, 71쪽.

21) 한국U러닝연합회, 『플립러닝 성공전략』, 219-227쪽.

22) John Bergmann, Aaron Sams, *Flipped Learning: Gateway to Student Engagement*, 정찬필, 임성희 역, 『거꾸로 교실: 진짜 배움으로 가는 길』, 109-111쪽.

23) 류승오, 김은하, 「수업혁신을 위한 배움중심의 거꾸로 수업 개념 논의」, 78쪽.

24) 이민경, 「새로운 교실 만들기의 가능성」 『교육비평』 제33호(교육비평사, 2014), 210쪽.

토론 등을 통하여 학습자의 온전성 확립에 공헌한다는 것이다.

Ⅲ. 아德勒의 개인심리학 이론과 온전성 형성의 상관성

버그만과 샘즈가 주창하여 한국에서도 교육적 열매를 맺고 있는 역전학습은 소위 거꾸로 교실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교육적 실천이 가정과 교실에서 일어나는 학습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협동과 상호 학습이 주요 교육 방법이었을 때 이 방법이 온전성 형성에 기여하는 주요 논제에 주목하게 된다. 그렇다면 협동이 어떻게 온전한 인간성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논의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학자는 알프레드 아德勒(Alfred Adler)이다. 여기서 온전성 회복이라고 하는 주요한 교육 목적에 역전학습과 아德勒의 심리학이 간학문적으로 만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아德勒의 심리학은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꿈의 해석』(*The Interpretation of Dreams*)에서 주로 나타나는 원인론적이고 결정론적인 트라우마(trauma, 상흔) 이론에 반기를 들었다. 아德勒는 프로이트의 주장, ‘사람은 과거의 트라우마에 붙잡혀 살기 때문에 변화될 수 없으며 늘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채워지지 않은 기본 욕구가 원인이 되어 자신이 거기에 얽매어서 살고 있다는 생각’에 반기를 든다. 아德勒는 인류가 프로이트의 이론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역설하며 이를 역전시킬 힘이 각 사람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은 자신의 인생 경험에 적절한 의미를 부여하여 스스로 삶의 양식을 선택하여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⁵⁾ 프로이트의 이론은 인생으로 하여금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의 덫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지만, 이에 반하여 인간은 과거의 원인에 영향을 받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한 의지와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는 것이 아德勒의 생각이다.²⁶⁾ 이것이 아德勒의 목적론(teleology)이다. 프로이트의 주장, ‘인간은 성적인 본능에 의하여 움직인다’는 것과는 달리 아德勒는 사람은 오히려 사회적 충동(social urges)에 의하여 움직인다는 것이다. 인간을 수동적으로 보지 않고 주관성을 가진 주도적인 존재로 보고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일관적인 목표를 추구할지에 대해 자신이 선택하고 행동한다고 본 것이다.²⁷⁾

25) 기시미 이치로(岸見一郎), 고가 후미타케(岸見一郎), 『嫌われる勇氣』 전경아 역, 『미움받을 용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아德勒의 가르침』 (서울: 인플루엔셜, 2014), 26-40쪽. 이치로와 후미타케의 각 색으로 비전문적인 독자들을 위해 재탄생한 이 책은 비록 아德勒의 이론이 지나치게 단순화된 면은 있어도 핵심은 설득력은 있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26) 앞의 책, 46-47쪽.

27) Alfred Adler, *The Individual Psychology of Alfred Adler: A Systematic Presentation in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edited by Heinz L. Ansbacher and Rowena R. Ansbacher (New York: Basic Books, 1956), p. 177; Alfred Adler,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 (New York: Greenberg,

아들러의 자신의 심리학을 개인심리학(individual psychology)으로 칭한다. 그가 심리학 앞에 개인(individual)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아들러가 각 개인을 충동이나 욕구의 총체로 보지 않고 자의식이 열려있는 총체적 존재(unit)로 보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들러의 총체론 혹은 전체론(holism)이다. 개인은 창조적 자아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자아는 자신만의 생활방식을 만들어 나간다. 결국 그가 추구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상의 최종 목표(fictional final goal)를 이루기 위하여 내적이고 주관적이며 창조적인 자아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²⁸⁾ 아들러가 개인 심리학을 강조했다고 하여 자아의 사회성 내지는 공동체성의 중요성을 무시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는 진정한 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필요를 강조했으며 공동생활의 원리를 절대진리(absolute Wahrheit)로 받아들여야 하고, 개인보다 공동체가 우선한다고 한다.²⁹⁾ 아들러가 사용한 인디비주얼(individual)이라는 단어의 라틴어 어원은 본래 “individuum”에서 파생되었으며 이 뜻은 나누어질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하는 “indivisible”이라는 형용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³⁰⁾

아들러는 편집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외감에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기 보다는 문제의 핵심을 직시할 것을 권한다. 아들러는 편집증 환자는 전 인류에 중오심을 가지고 동료들이 조직적으로 그에게 대항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반해 우울증 환자는 자기 자신을 증오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³¹⁾ 그러기에 편집증 환자는 타인에게 공격적 성향을 보이고, 우울증 환자는 자기 자신에게 공격적 성향을 보인다. 여기서 전술한 한병철의 현대 사회 진단과 아들러의 진단 간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아들러는 경쟁과 끊임없는 과제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자기감정에 매몰되지 말 것을 요청한다. 인간이 지나치게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면서 인정받기만을 원할 때 그에게는 편집증이라는 질병을 만날 확률이 높으며, 반대로 지나치게 과거의 경험이나 감정에 매달릴 때 우울증과 같은 신경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하여 개인의 기쁨과 삶의 의지도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은 경쟁과 자기중심의 삶에서 사람을 자유롭게 하며 다른 이들과의 사회적 협력과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에 눈을 돌리게 한다는 것이다.³²⁾ 그렇게 될 때 자신을 이웃

1949), pp. 15-23.

28) Alfred Adler, *The Individual Psychology of Alfred Adler: A Systematic Presentation in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p. 90.

29) Alfred Adler, *Menschenkenntnis*, 라영균 역, 『인간이해』(서울: 일빛, 2009), 34-35쪽.

30) <http://www.etymonline.com/index.php?term=individual>. 2016. 1. 30. 접속. 노만수, “웁긴이 해제”, 가시미 이치로, 『よく生きるということ 死から生を考える』, 노만수 역, 『늬어갈 용기: 자유롭고 행복해질 용기를 부르는 아들러의 생로병사 심리학』(서울: 예세, 2012), 365쪽.

31) Alfred Adler, 김문성 역, 『아들러 심리학 활용』(서울: 스타북스, 2015), 224-225쪽.

32) 기시미 이치로(岸見一郎), 고가 후미타케(岸見一郎), 『미움 받을 용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아들러의 가르침』, 212쪽 이후.

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서 인식하게 되며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싸며 해결책을 찾게 된다는 이론이다. 김문성에 의하면 아들러가 다른 심리학자들과 차별되는 점은 사회적 연대, 공동체 의식, 개인의 용기와 노력이 결합함으로써 우리의 미래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확고한 믿음이다. 아들러가 주창한 생각의 핵심은 누구나 사람은 과거 트라우마에 얽매일 필요가 없으며 굳건하게 현재를 살아가기 위한 미래적 선택을 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기색이 보여도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미움 받을 용기”마저 발휘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만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자궁심으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편견이나 타인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협력과 사랑으로 자신과 인류를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하라는 논의이다.³³⁾ 아들러는 누구나 주관적인 자아를 갖고 있으며 그 자아는 창조적 자아로서의 기능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자아의 통합된 성격구조를 개인의 생활양식(life style)로 불렀다.³⁴⁾ 그리고 개인의 온전한 자아가 형성되어 가는 생활양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인생임무(life tasks)는 일과 사랑과 우정임을 제안한다.³⁵⁾

아들러는 현대인들에게 이제 과도한 자의식에서 벗어나 자기 수용을 하라고 주장한다. 그래야 온전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³⁶⁾ 전술한 한병철의 『피로사회』, 『우울사회』에 나타나는 현대인의 과도한 자기긍정과 자기착취라는 현상에 대하여 아들러의 생각은 일종의 진단과 더불어 처방도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들러의 철학적 심리학은 하나의 역전학습의 교육적 지향성과 일치하는 심리학적 논제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휴머니스트 교육 철학자였던 아들러의 생각은 “인간을 본능의 포로가 되어 있거나 문화적인 압력이나 유년기의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성장과 미래를 지시하고 창조하는 존재”³⁷⁾라고 하여 심리학의 토대를 놓았다. 아들러의 이론을 피로사회로 대변되는 21세기 포스트모던 시대에 재론하는 이유는 프로이트의 환원론적 인간론이 과거에 불합치 변화의 가능성에 수동적이었다면 관계와 사랑과 협동을 통하여 새로운 자아가 형성될 수 있다고 하는 아들러의 심리학은 피로사회, 우울사회의 비상구와 같은 학문적 통찰을 주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역전학습도 결국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존재론적 지식, 관계형성능력 등을 형성하게 하는 교육방법인데 이것을 통해서 획득되는 사랑과 협동능력은 결국 아들러가 이야기 하는 사랑과 협력을 통하

33) Alfred Adler, 『아들러 심리학 활용』, 5쪽.

34) Alfred Adler, *The Individual Psychology of Alfred Adler: A Systematic Presentation in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p. 95.

35) Rudolf R. Dreikurs, *Fundamentals of Adlerian Psychology* (Chicago: Alfred Adler Institute, 1953), pp. 91-108.

36) 기시미 이치로(岸見一郎), 고가 후미타케(岸見一郎), 『미움 받을 용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아들러의 가르침』, 254-284쪽. 이 책은 이치로와 후미타케가 아들러의 심리학을 작가적 상상력으로 각색하여 쉽게 써내려간 책이다.

37) 최창호, 『20세기를 빛낸 심리학자』 (서울: 학지사, 1999), 132쪽.

여 인간은 온전해질 수 있다는 심리학적 명제와 맥을 같이한다. 이렇듯 아들러의 심리학적 논의와 역전학습의 교육방법론은 인간의 온전성이라는 교육목적에서 같이 만나게 되는 것이다.

IV. 온전성 형성을 위한 역전학습의 기독교교육적 함의

1. 온전성 형성에 대한 기독교교육학적 이해

기독교교육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존엄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본래 자신에게 주어진 온전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온전성을 회복하는 것에 대하여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신앙인이 추구해야 할 온전한 삶에 대하여 삼중 강조를 하고 있다. 이는 지정의(知情意)를 내포하고 있으며, 지식, 감정, 의지(혹은 행동)를 균형 있게 동원하여 신앙생활을 할 것을 촉구한 구절이다. 이를 데니스 홀링거(Dennis Hollinger)는 머리, 가슴, 손 신앙으로 표현하였다. 온전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는 것과, 느끼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세 가지가 골고루 강조되어 통합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의 양식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홀링거는 역사 가운데 스콜라주의, 은사주의, 사회복음주의라는 세 가지 경향이 각기 따로 나타났는데 바로 이것이 머리, 가슴, 손 신앙을 대변하는 일종의 단편화된 현상이라는 것이다. 머리신앙을 최우선시 하는 이들은 이성을 지나치게 앞세우고, 가슴신앙을 우선시하는 이들은 감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손신앙을 앞세우는 이들은 행동하는 신앙만이 참 신앙이라고 주장한다.³⁸⁾ 사람이 온전성을 견지하려면 아래의 <그림 1>에서 표현된 것처럼, 지정의가 그리고 머리 가슴 손이 통합되어야 한다. 또한 인식론적인 관점에서도 다음과 같은 요소가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파커 파머(Parker J. Palmer)는 인식주체와 인식대상 사이에는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³⁹⁾ 그리고 진리는 늘 이 상호주관성이라는 관점에서 대해야 하는데 상호주관적 진리는 인격적(personal), 참여적/책임적(participatory/responsible), 공동체적(communal)이다.⁴⁰⁾ 파머가 주장한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온전성을 회복하게 해 주는 진리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상호간에 서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추

38) Dennis Hollinger, *Head, Heart, and Hands*, 이지혜 역, 『머리, 가슴, 손』 (서울: IVP, 2008), 38 쪽 이하, 김도일, 『온전성을 추구하는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1), 48쪽에서 재인용.

39) Parker J. Palmer, *To Know As We are Known: Spirituality of Education* (New York: HarperSanFrancisco, 1993), p. 32.

40) 앞의 책, pp. 48, 51, 57, 손원영, 「포스트모던시대의 인식론」 『포스트모던시대의 기독교교육 학습공동체』 (서울: 요단, 2014), 24-29쪽에서 재인용.

구하는 진리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상호주관성과 상호의존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고 진리를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함께 진리를 실천하며 책임적인 태도로 진리를 따르는 삶을 통합적으로 추구해야 온전성 형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림 1: 온전성을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의 통합〉

온전성이란 지정의가 통합될 때 형성되는 인성이며, 이성과 감성과 행동이 통합될 때 형성되는 사람됨이고, 인격적 판단과 책임적 동의와 공동체적 실천이 통합될 때 나타나는 통전성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결국 온전성 형성을 위한 기독교교육은 개인중심적이고 내세중심적인 신앙교육을 넘어선 공적 신앙을 위한 시민의식 교육이고, 비판적 사색, 공감, 창의성을 통합하는 통전적 마인드 형성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다.⁴¹⁾ 이러한 온전성 형성을 위한 교육을 위하여 기존의 교사 중심적이고 내용 전달식이며 은행 저금식인 전통적인 교육방법을 넘어서는 역전(reversal)을 꾀하는 역전학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기대되는 시대가 되었다.

2. 온전성 형성을 위한 역전학습의 역할

온전성을 형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역전학습과 코이노니아 속에서 일어나는 공동학습과의 상관관계를 다루었다. 그리고 역전학습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온전성 형성에 기여한다는 사실은 이미 위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 온전성 형성은 기독교교육학에서 추구하는 인간화 작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역전학습은 교사주도적이고 일방적인 전달중심의 교수방법에서 학습자 주도적이고 쌍방향적인 대화와 토론중심의 교수방법으로의 전환을 가져다준다. 이것이 사라 리틀(Sara Little)이 말하는 “코이노니아 가운데서 함께 배우는 교육”이다. 역전학습은 일반적으로 전체 학습자가 같이 배우던 전통적인 학습과정의 순서를 뒤집어 놓은 교육의 과정(process)으로서 교실에

41) 조은하, 「기독교교육과 미래마인드」, 김도일 편저, 『미래시대, 미래세대, 미래마인드』(서울: 기독교교, 2013), 265-274.

서의 수업이전에 먼저 개별학습의 과정을 거친다. 혼자서 먼저 주제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미리 주제에 대한 숙제를 먼저 하는 것이다. 그 후 학습자는 교실로 들어와 자신이 주도적으로 배운 교과주제에 대한 토론을 공동학습 과정(learning together process)을 통하여 다시 하게 되는 것이다.⁴²⁾ 여기에 역전학습이 주는 기독교교육적 함의가 있다. 역전학습은 주제에 대하여 피상적이지만 개인적인 내면화 과정을 거치고 난 후 공동학습,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이해를 공동학습 과정을 통해 걸러내고 확인함으로써 학습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혼자 배울 때보다 다른 사람과 한 그룹에 같이 속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견해와 자신의 견해를 상호간에 서로 나누면서 갈등과 조정, 그리고 이해와 수용, 연합의 경험을 하게 된다. 그룹 다이내믹스 이론에 의하면 그룹 내 사람들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가운데서 느끼는 개인의 학습경험은 일방적인 교수만이 진행될 때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깨달음의 경험을 하게 한다.

연구자가 실제로 “교육목회”라는 과목에서 역전학습을 시도한 바가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기독교인의 제자직과 시민직에 대한 통전적 정체성에 대한 주제에 대하여 수업할 때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가나안 성도의 현황’(‘가나안 성도’는 신앙을 갖고 있으나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는 기독교인을 의미한다) 이라는 동영상을 미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선학습을 하고 수업에 참석하도록 독려하였다. 그 후 수업시간에 소그룹에서 제자직과 시민직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선행학습을 참고하여 토론을 유도했을 때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학습효과가 나타났다.

첫째, 짧은 시간의 토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제에 대하여 미리 학습하고 고민할 수 있는 개인학습의 시간이 주어졌기에 심도 있는 그룹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둘째, 소그룹 활동에서 학습자들의 참여가 훨씬 적극적이었다. 셋째, 교수자 주도의 일방적인 전달식 교육에서 제시하는 지식의 종류보다 다양하고 체험적인 지식들이 공유되었다. 넷째, 토론을 통해 한 학기 수업 이후에 학습공동체를 넘어서는 목회공동체가 새롭게 형성되는 그룹도 목격하였다. 이를 통하여 토론은 협업과 관계성 증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다섯째, 소그룹 토의 과정에서 일치되지 않는 견해에 대한 조율과 협상 등의 사회적 배려 태도를 함양하게 되었다. 여섯째, 수업에 있어서 모든 학생이 주인공이 됨으로써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되는 양상을 보였다. 일곱 번째, 새로운 지식습득과 아울러 행동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도의 제자로서의 역할에 편향되어 있었던 정체감에서 기독교적 시민에 대한 인식의 확장뿐 아니라 실천적 결단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컨텍스트의 구체성에 기반

42) Sara Little, *Learning Together in Christian Fellowship*, 김대균 역, 『신앙, 천교, 교육』 (서울: 백함, 1972), 20-21쪽.

을 둔 토론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 변화였다. 이렇게 나타나는 교육적 현상들은 한 개인의 온전성 형성이 교실 안의 교육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이다.

진정한 학습, 온전성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경험은 진정성이 담보된 교제와 사립의 경험 위에 세워진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역전학습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주도적 학습과 협동 학습과 토론 학습은 신앙 성숙을 촉진하는 교제(코이노니아)와 사립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겠다. 개인이 공동체 속에서 정보처리과정을 통하여 어떤 주제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고, 집단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구성하게 되며, 간접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기검증을 하고 진리와의 조우를 하게 되며, 자각과 자기표현을 통하여 자아의 능력을 개발하면서 인격이 발달되기 되며, 상호간에 정보를 주고받으며 평가하고 생각하는 중에 행동과 반성을 과정을 겪으며 자신이 품게 된 신념에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게 된다.⁴³⁾

역전학습을 통하여 자신과 상대방을 비롯한 모든 인간이 존엄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바 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호존중, 상호간 협동, 상호간 사랑하는 가운데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실천하는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다. 함영주가 강조한 것처럼 역전학습을 통하여 신앙의 성장과 변형을 이루어가는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이 길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역전학습은 코이노니아적 환경이 일어나는 공동학습이 일어나게 하고 온전성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기독교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킨다.⁴⁴⁾

3. 역전학습과 아들러 심리학의 상호성

역전학습이 인간의 온전성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역전학습에서 형성될 수 있는 협동과 소그룹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랑 및 관계의 형성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협동과 사랑의 경험이 어떻게 인간의 온전성을 형성하는 주요한 교육적 심리적 근거가 되는가에 대한 단초를 아들러의 심리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의 핵심적 주제는 사랑과 협동이다. 그는 안과 의사로서 의술을 펼쳤으며, 실제로 낙천적이고 명확하며, 인내심 있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심리학자였고 독특한 이해심으로 복잡한 성격과 상황까지 꿰뚫어 보는 혜안을 가졌던 상담가였으며 유머 감각이 뛰어나 극도로 굳어진 환자들의 마음도 사로잡았었다고 그의 친구 정신과의사는 증언하였다. 그가 주창한 개인심리학은 인간성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있으며 문제아, 신경쇠약 환자, 범죄자 등의 치료에 획기적인 성과를 이루었다.⁴⁵⁾ 그는 또한 교

43) Sara Little, *To Set One's Heart*, 사미자 역, 『기독교교육 교수방법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8), 88-89쪽.

44) 함영주, 「플립러닝을 활용한 성경교수실행모형 개발」 『개혁논총』 34호(개혁논총신학회, 2015), 256-260쪽.

45) Alfred Adler, *What Life Should Mean to You*, 김문성 역,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스타북스,

육자였다. 인간 행위의 문화를 연구하여 사람의 성격형성에 관한 부모와 교사의 역할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는 한 인간의 열등감은 사회적 관심의 소홀로 발생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은 게으름이라고 진단하여 한 개인의 단점과 인간적 한계를 개인적 차원에서만 해결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모든 인간의 단점 및 부족함은 사회적 공동체 안에서 치유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하는 것이고 교사와 부모는 이러한 역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역설하였다.⁴⁶⁾ 아들러의 관찰에 의하면 사회적 부적응자들의 공통점은 협동하는 능력의 정도가 낮다. 그러므로 협동하는 능력이 한 사람의 온전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⁴⁷⁾ 아들러에게 있어 협동심을 가르치는 것은 최선의 교육이다.⁴⁸⁾ 열등감 때문에 사회 속에서 낙오되거나 지나치게 우월감을 획득하려다가 죄를 범하는 이들을 줄이고 궁극적인 도움을 주어 온전성을 추구하게 하려면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교사가 있어야 한다.⁴⁹⁾

더 나아가 학습자들이 협동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사랑의 경험을 하게 하는 주요한 교육방법에 대하여 아들러는 토론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게으른 학생’이 있는 교육현장에서 게으른 학생을 문제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에 대하여 토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학습자 스스로 게으름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비판적 성찰, 더 나아가 공동체의 견해를 숙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 될 경우 교육현장에서는 심각한 사안들은 줄어들고 일상에서의 문제들은 긍정적 요소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온전성에 있어서 협동과 사랑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것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중요한 교육방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역전학습에 있어서 토론과 문제해결중심의 교육이 협동심을 형성해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러의 심리학은 학습자의 온전성 형성에 대한 내적 공헌도가 매우 높은 것이다. 또한 기독교교육학적 적용도가 매우 높으며 진보적인 신학에서 견지하는 학습자의 잠재력에 대한 가능성을 담보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타자에 대하여는 공동체 감성을 가질 것을, 아픔에 대하여는 존재자체로 타자에게 공헌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것을, 나이 들에 대하여는 늙어가는 그 낮은 시간에서 삶을 아름답게 선택할 것을,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 회피하거나 죽기 전에 미리 죽지 말고 죽음을 자신을 완성할 기회로 삼을 것을 권면하는데, 이러한 양상은 곧 교육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존재론적 지식을 형성해 간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⁵⁰⁾ 그의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과 발달에 책임감

2011), 프롤로그.

46) Peter van Lierop, 「Factors in Alfred Adler's Individual Psychology Relevant to Character Education」 『신학논단』 7(연세대학교 출판부, 1962), pp. 131-133.

47) Alfred Adler, *What Life Should Mean to You*, 김문성 역,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90-92쪽.

48) 앞의 책, 313-318쪽.

49) 앞의 책, 403-410쪽.

을 갖고 대처하게 하는 심리학이며 타인과의 어울림을 강조하고 자기 조각력(彫刻力)을 키워 행복한 삶을 만들어감으로 온전한 존재로 살아가게 한다.⁵¹⁾

인간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변화의 단서를 과거보다는 현재의 공동체에서의 경험 및 타인의 배려와 사랑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역전학습의 교육적 영향력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아德勒가 제안하는 사랑, 협동, 사회적 감성, 그리고 용기는 학습자의 온전성을 형성하는 데에 기독교교육적으로도 매우 함축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구체적인 학문적 기반을 제공해 준다.

V. 결론: 기독교교육적 실천을 위한 제언

성과위주의 경쟁 사회 속에서 자신과 싸우고 타인과 부딪히며 끝없는 성장 신화가 만들어진 허상 속에서 신음하면서 피로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현대인 학습자들을 과연 어떻게 도와 온전성을 추구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본 연구는 시작되었고 한병철의 『피로사회』는 끝없는 연민을 불러넣어 주어 필자로 하여금 연구에 대한 열정과 동기를 갖게 하였다. 기독교교육은 망가진 인간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기독교교육을 통해 온전성을 회복시키는 데 일조하여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존엄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인간의 제반 교수-학습 과정에 관여하는 시도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기독교교육학이다. 그러기에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연계하고 연합하여 학습자의 수동적인 학습 자세를 바로 잡아 주어 자기주도적인 개별 학습에 재미를 느끼게 하고 상호교류와 상호존중의 정신으로 공동학습, 공동토론으로 객관적으로 느껴졌던 지식을 주관적인 자기 지식, 공동체를 위한 지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구성주의적인 시도인 역전학습을 교수-학습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적용하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역전학습이라는 교수학습과정의 안쪽에서 신음하고 열등감에 빠져 있는 학습자의 내면적인 자아를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자기 확신을 얻고 사랑과 협동이라는 열정과 동기를 갖고 사회적 감성을 키움으로써 공동체 속의 자신과 타인을 건강한 시각으로 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과거의 경험을 숙명적인 것으로 여기고 얽매이는 우를 범하지 않는 온전한 자아를 지닌 개인, 사회적 이슈에 자신도 연결되어 있다는 책임적 개인으로 살게 하는 아德勒의 개인심리학을 개인의 속사

50) 가시미 이치로, 『늪어갈 용기: 자유롭고 행복해질 용기를 부르는 아德勒의 생로병사 심리학』, 1장-5장 핵심.

51) W. Beran Wolfe, *How to Be Happy Though Human*, 박광순 역, 『아德勒의 격려』 (서울: 생각정거장, 2015), 28-32쪽.

람을 온전하게 하는 심리철학으로 삼아 온전성을 추구하는 통로로 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발견하였다. 이렇게 교육학과 심리학이라는 독립된 두 학제의 범주를 ‘온전한 자아 형성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간학문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온전성을 추구하는 기독교교육론을 세우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이러한 역전학습이 기독교교육현장에서 가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육적 실천이 필요하다.

첫째, 역전학습은 기독교교육학의 교육목적과 목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제기하고 있다. 즉 기독교교육현장에서 그동안 소홀히 되고 있던 ‘인간의 온전성 회복’이라는 신학적 명제를 교육적 차원에서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이 프로그램으로 대치되고 수적인 성장과 발전을 성장과 성숙의 지표로 삼았던 현실에서 과감히 학습자 한 개인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온전성을 형성해 가는 차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교육본질에 대한 회복이며 방향과 가치에 대한 재정립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역전학습은 기독교교육현장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역전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학습을 위한 교육콘텐츠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이것은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 계획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투자와 준비를 요하는 것이다. 나아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학습자들의 역량에 맞는 교육적 도구와 교육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학습자들이 살아가는 시대의 전문성을 확보하되 그 전문성 속에서 영성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교육의 중요한 역할인 것이다. 따라서 개 교회뿐 아니라 각 교단의 교육정책은 이러한 교육적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적 투자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역전학습은 기독교교육에 있어서 가정과 교회의 불가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자기 주도적 선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에서의 학습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학습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것은 가정에서 학습자의 신앙성숙과 성장을 위한 관심과 협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네 번째, 역전학습은 교회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교육모형에 대한 용기 있는 도전이 필요하다. 역전학습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의 준비와 더불어 기존보다 더 많은 교육시간을 필요로 한다. 기존의 형식과 교육의 상황에서 반별로 진행되는 교사중심의 공과공부는 대략 15-20분 정도의 시간만을 가지고 이루어진다. 그러나 역전학습은 학습자가 참여하고 대화와 소통, 협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주안점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교육시간의 확보는 기본적인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육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같이 이어야 하며 이것은 개 교회마다 여건에 맞추어 현장에 맞는 다양한 시도를 극복해야 하는 현안이기도 하다.

다섯 번째, 역전학습을 위하여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한 교사연구모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교사연구모임이 개 교회를 넘어서 지역교회, 교단, 또는 기독교교육연구단체등의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교수-학습 모형의 창의적 개발을 위한 논의들이 이루어져

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역전학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정-교회-교단이 협력하고 준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새로운 교육모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이러한 도전은 피로사회 속에서 과급된 인간성 상실의 현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준비하기 위한 영성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은 기독교교육현장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도일, 『온전성을 추구하는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1.
- 가시미 이치로(岸見一郎), 『よく生きるということ 死から生を考える』, 노만수 역, 『늡어갈 용기: 자유롭고 행복해질 용기를 부르는 아들러의 생로병사 심리학』, 서울: 예췌, 2012.
- 가시미 이치로(岸見一郎), 고가 후미타케(岸見一郎), 『嫌われる勇氣』, 전경아 역, 『미움을 받을 용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아들러의 가르침』, 서울: 인플루엔샬, 2014.
- 류승오, 김은하, 「수업혁신을 위한 배움중심의 거꾸로 수업 개념 논의」 『교육문제연구』 제 20권 1호 (전북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4).
- 박태정, 차현진, 「거꾸로 교실의 교육적 활용가능성 탐색을 위한 교사인식 조사」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제18권 제1호 (한국컴퓨터교육학회, 2015).
- 손원영, 「포스트모던시대의 인식론」 『포스트모던시대의 기독교교육 학습공동체』 서울: 요단, 2014.
- 이민경, 「새로운 교실 만들기의 가능성」 『교육비평』 제33호 (교육비평사, 2014).
- 이희숙, 김창석, 「플립러닝 학습이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동계 학술 발표논문지』 제19권 1호 (한국컴퓨터교육학회, 2015).
- 정기묵, 「역전학습을 응용한 토론식 협력학습」 『보편적 수업의 설계 및 실행』, 서울: 장신교 수학습개발원, 2015.
- 조은하, 「기독교교육과 미래마인드」, 김도일 편저, 『미래시대, 미래세대, 미래마인드』, 서울: 기독한교, 2013.
- 최창호, 『20세기를 빛낸 심리학자』, 서울: 학지사, 1999.
- 한국U러닝연합회, 『플립러닝 성공전략』, 서울: 한국U러닝연합회, 2014.
- 한병철, *Müdig Keits Gesell Schaft*, 김태환 역, 『피로사회』,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4.
- 함영주, 「플립러닝을 활용한 성경교수실행모형 개발」 『개혁논총』 34호 (개혁신학회, 2015).
- Adler, Alfred, *Menschenkenntnis*, 라영균 역, 『인간이해』, 서울: 일빛, 2009.
- _____, *The Individual Psychology of Alfred Adler: A Systematic Presentation in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edited by Heinz L. Ansbacher and Rowena R. Ansbacher, New York: Basic Books, 1956.
- _____,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 New York: Greenberg, 1949.
- _____, *What Life Should Mean to You*, 김문성 편역, 『아들러 심리학 활용: 가정 · 학교 · 직장 · 사회에서의 이해와 협력』, 서울: 스타북스, 2015.
- _____, *What Life Should Mean to You*, 김문성 역,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스타북스, 2011.
- Bergmann, John and Aaron Sams, *Flipped Learning: Gateway to Student Engagement*, 정찬필, 임성희 역, 『거꾸로 교실: 진짜 배움으로 가는 길』, 서울: 에듀네티, 2015.
- Dreikurs, Rudolf R., *Fundamentals of Alderian Psychology*, Chicago: Alfred Adler Institute, 1953.
- Hollinger, Dennis, *Head, Heart, and Hands*, 이지혜 역, 『머리, 가슴, 손』, 서울: IVP,

2008.

Lierop, Peter van. 「Factors in *Alfred Adler's Individual Psychology Relevant to Character Education*」 『신학논단』 7(연세대학교 출판부, 1962).

Little, Sara, *Learning Together in Christian Fellowship*, 김대균 역, 『신앙, 친교, 교육』, 서울: 백합, 1972.

_____, *To Set One's Heart*, 사미자 역, 『기독교교육 교수방법론』,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88.

Palmer, Parker J., *A Hidden Wholeness*, 윤규상 역, 『온전한 삶으로의 여행』, 서울: 해토, 2007.

_____, *To Know As We are Known: Spirituality of Education*, New York: HarperSanFrancisco, 1993.

Wolfe, W. Beran, *How to Be Happy Though Human*, 박광순 역, 『아들러의 격려』, 서울: 생각정거장, 2015.

원고접수일: 2016년 1월 9일 심사일: 2016년 2월 9일 게재확정일: 2016년 2월 11일

연구자소개: 김도일

① 전공: 기독교교육학, / 소속: 장로회신학대학교

② 관심영역: 기독교교육사상

③ 주요논저: 『현대 기독교교육의 흐름과 중심사상』, 『온전성을 추구하는 기독교교육』,
『맑은 영성, 맑은 가르침』 외 다수의 저역서와 논문

④ E-mail: doilkim@puts.ac.kr

Abstract

A Search for the Possibility of Building Integrity in Christian Education Through Flipped Learning

Kim, Doil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Modern Society is characterized as “fatigue society” in which people are caught up with result oriented and work obsessed mentality. People endlessly exploit themselves. As a result, their inner self was fragmented and lost. Originally holistic but it is shattered and needs to be recovered. In order to heal the self image that is wounded, family, church, school need to find an effective teaching-learning method. This research is performed to search possibility whether the flipped learning promote integrity of self. The flipped learning is known as an effective tool that can prepare learners to think about the subject matter at home and deal with the issue in class with classmates through discussion in small groups. This group discussion encourages learners and help them earn knowledge and wisdom that are participatory, responsible, and communal. They learn to respect fellow students and in the process they mutually learn that epistemological subject and object eventually acknowledge and cooperate one another through flipped learning. As far as health of the inner holistic self is concerned, Freudian psychology usually cling onto the past trauma and blame it for not being successful at present time. This deterministic view must be thrown away since individual can and must make her/his own present life without blaming the past hurts according to Alfred Adler. He calls his theory as individual psychology because individual is a holistic being and also every individual is and must develop social instinct that we are all connected and responsible for the wellbeing of others as a whole. Our life style and attitude that make a responsible choice for society in the spirit of love and cooperation will ultimately be a way and academic foundation for building inner holism. With flipped learning as teaching method and Adler’ s individual psychology as a theoretical foundation, we can overcome the fear of being the victims of the fatigue society. We will find a better way of learning truths

through flipped learning and establish a better self image through Adler's psychology. These two distinctive academic disciplines are used in a trans-disciplinary way in order to find a better working solution for the modern problems. Both flipped learning and Adler's theory will enhance the process of building integrity (holistic self) and contribute to regain dignity as human which is the purpose of Christian education.

Key words: *integrity, flipped learning, Adler's individual psychology, love and cooperation, Christian education*